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여 혁 구 아우구스티노
 보좌신부: 오 주 환 요 셉
 수녀: 송 영 미 울 리 안 나
 수녀: 하 연 희 데 레 사
 사목회장: 장 은 수 요 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목주기도-미사30분전 오후 6시(초중고등부)		◎ 교황님의 기도지향 · 6월 복음화 지향		
	· 주 일: 오전 5시 30분,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저녁 8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5시 30분 화 ~ 금: 오전 11시 화 · 목: 오후 7시		사제들이 겸소하고 겸손한 삶으로 가장 가난한 이들과 연대를 이루는 데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교리교사: Sr.송울리안나, Sr.하데레사, 안득수마리오)				초등부 교리
			중고등부 교리	토요일 오후 5시	

입당송/영성체송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 - 님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 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 받으소 - 서
 하느님 이 당 - 신 아드님의 영 - 을

저 - 희 - 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 - 님
 너 - 희 - 마음 에 보내셨 - 다

성 - 부 와 성자와 성령은 찬 미 받 으 소 서
 그 - 영 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 - 치 - 신 다

◎제1독서: 잠언 8,22-31 ◎제2독서: 로마서 5,1-5 ◎복음: 요한 16,12-15

◎화답송:

주 - 님 저희 주 님 온 땅에 당신이 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 까

‘홀로’가 아닌 ‘더불어’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홀로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공동체로 계시는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공동체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우리 안에도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도 성령을 받아 모셨기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시기에 성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존재는 하느님을 품고 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 이웃도 바로 하느님을 품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느님의 말씀만 믿고 하늘나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하느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하느님께 명한 것을 지키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격려 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코린토 2서 13,11)

이웃을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되어 살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도 바로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 아니면 군중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내어 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보이실 때도 모두 이웃을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을 뽑아 세우신 것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함께 하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한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면에 함께 하며 내어주는 삶에는 바로 하느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홀로’가 아닌 ‘더불어’를 통해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5,20~)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느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을 공부하고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보다 더 의롭게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악마가 제자들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것은 ‘괜찮아’ 하면 자기 위로를 하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작은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하면 못마땅해 합니다. 요즘 이 말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악마는 이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속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큰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마태 5,23-24)

행사 이모저모 & 기타



△ 「교리교사의 날」 야유회 : 보좌신부님과 초중고등부 선생님들(6/9/주일)



△ 전주교구 울뜨레아 50주년행사참여(6/6/목), 해성학교



△ 삼위일체 표현의 어려움: 세잎 클로버(photo:Pixabay.com)



△ 외국의 경우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photo:Karen Roach)

핸드폰 관련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

- ♣ “가톨릭 신자들이 핸드폰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2017.3.5.)
- ♣ 교황은 “사제가 미사 중에 '마음을 드높이' 라고 하지 '핸드폰을 드높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며 미사 도중 핸드폰 촬영을 자제하고 미사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7.11.8.)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현대옥 아종직영점	독일지멘스보청기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송현귀(요 한) 최금호(요안나)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락전골 명품 한우 전문 김문식(베드로) 심 데레사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김동주(바오로) 장현숙(세레나)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콩나물 국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 손주경(니콜라오) ☎284-0099 H.P. 010-3366-7575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박종아(조화서베드로) 김남영(글라라) 중앙성당 건너편 2층 ☎283-4566 H.P. 010-3689-5492

동래분식	남문&mall.남문문구센터	태양광 분양·임대	퍼스트키친.금동물류센터	풍 남 정
새알팔죽, 팔갈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전골집 양명구(다비드) 이정미(세실리아) ☎288-4607 H.P. 010-35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원수관(야고버) 심경이(마리아)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전국 약35곳 분양/ 분양중 이소벽(로마나) H.P.010-5703-7688	학교용, 주방용 그릇 전문업체 장순문(프란치스코)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709-7 H.P.010-7657-1606 ☎284-5627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박래연, 이현숙 전동성당 후문 H.P.010-3680-2756 ☎282-8754

전 동 계 시 관

♡ 축하 영 명!

송울리안나 수녀님의
축일(6/19)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교 중 미 사 중

◎ 오늘은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입니다.

■ **본당설립 130주년기념 사진전시회**

*오늘(주일)~6/30(주일), 교육관1층 윤지총홀

■ **방문봉성체: 6/18(화)14:00**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주임신부님 천호 목요 하루피정:6/20(목)10:00-16:00**

*주제: 돌을 치워라!(요한11,39), 천호성지피정의 집

*당일 09시 본당 봉고차 운행: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전시회**

*6/15(토)~6/20(목) 성당 앞마당

■ **구역반장회의: 6/21(금)10:00, 종합사무실**

■ **미디어 파사드 공연 「빛의 성당」**

*6/21(금)~6/22(토)20:30, 21:00 전동성당 앞



**본당설립 130주년
묵주기도 130만단 봉헌**

지난주: 24,068	총: 347,037
-------------	------------

【금 주 모 임】

- 울뜨레아교중미사 후
- 바노의 성모Cu.-13:30
- 성모성심화-6/19(수)10:00
- 성화화-6/20(목)19:00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6월 14일 현재)	558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우리들의 정성(6월3일~6월9일)

· 주일헌금: 4,735,500 · 교무금: 5,919,000

· 가난한 이들을 위한 2차 헌금: 1,740,800

김진희(수산나)	100,000
· 감사헌금: 석재성(요 셉)	100,000
이복영(안젤로)	1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하늘해 외 여행사	갯마을회관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정창희(안셀모) 이성숙(안젤라) 전동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우아)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삼숙(베로니카) 김경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최석재(스테파노) ☎286-9595	해물탕, 아구백반 이한금(분다) 남문약기사 앞 H.P.010-3684-3339 ☎282-0876, 282-1289